

수억원 들인 문화도시 조성 줄줄이 실패, 이유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고배 경북 칠곡·성주군, 대구 달성군

대구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몇몇 전문 용역업체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업 재원도 인건비에 과다 투입돼 ‘배보다 배꼽’이 큰 내실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북 칠곡군과 성주군,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전문 용역업체에만 전적 의존 지역 특색 못 살리고 비슷해져 예산 상당부분 인건비에 투입 주민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못내

마셨다. 앞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던 세 지자체는 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의 흔적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지역은 상호는 다르지만 특징인이 대표 및 소장을 맡고 있는 전문 문화기획업체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설계 및 기획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이 사업 설계를 따내 일을 주도하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다. 경북 안동시와 영덕군도 또 다른 업체 한 곳에 동일하게 작업을 맡겼다.

칠곡군이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억5천만원에 이르고, 다른 지자체 예산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 업체에 일을 맡기는 실정”

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가장 특색 있어야 할 문화사업을 몇몇 특정 업체가 맡다 보니 공장에서 기성품 생산하듯 문화를 찍어내는 꼴이 됐다”고 비판한다.

용역 발주로 인해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용역업체 인건비에 쓰이고 전문가 초청 수당 등도 적지 않게 배정돼 정작 문화사업 부분에 쓰일 부분이 적다는 점 역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중춘 칠곡군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장은 “칠곡군의 경우 예산 절반 정도가 용역비, 문화도시지원센터 인건비, 세부사업 채용역 및 전문가 초청 등에 쓰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 초청 좌담회 형식의 사업이 많아 보니 문화생태계 토양 배양보다는 양적 실적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을 보면 취지와 무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 이 사업을 적극 권유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늦더라도 차근차근 지역 차원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옛 사대부가 즐긴 풍경, 빠져든다

지례예술촌은 우리나라 고택 체험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다. 임하호가 한 눈에 보이는 인기 방은 100% 예약이 끝난 상태. 안동시 제공

안동지역 고택들, MZ세대 힐링 공간으로

지례예술촌 올해 예약 80% 완료 농암종택 인생사진 명소 입소문 옥연정사 지난해 1,200명 발길 시 ‘메니저 육성·위탁운영 지원’

사대부 집안의 높다높은 담장 속에 갇혔던 경북 안동지역 고택들이 20, 30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 관광객들을 맞으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최적의 장소로 꼽히면서 코로나 19로 답답해진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층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초에 1년치 예약이 만실을 기록했던 경북 안동 지례예술촌은 올해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미 연간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다. 이곳

은 1988년 우리나라에서 고택, 한옥 체험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임하호가 흰하 내려다 보이는 방은 100% 예약이 찼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려 숙박하는 젊은 층도 적지 않다. 고무신을 신고 이동하고, 냉장고·화장실은 공용으로 써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방문객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낙동강 상류인 도산면 가송리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 소문이 난 농암종택도 주말 예약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이 보이는 정자인 ‘강각’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종부(宗婦)의 손을 통해 대대로 빛어 온 가양주인 ‘일엽편주’는 애주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회마을 옥연정사에는 지난해 1천

200여 명이 다녀갔다. 이 가운데 20, 30대가 50%를 차지한다. 하회마을을 건넌다 볼 수 있는 낮 풍경뿐 아니라 낙동강변을 바라보는 소나무, 은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밤하늘의 별 등은 도시의 시름을 털어내는 최적 장소로 꼽힌다.

고택이 이처럼 인기를 얻는 것은 넷플릭스 ‘킹덤’ 등 사극을 통해 한국의 모자 ‘갓’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오징어게임 등 한국문화에 외국인들이 열광하면서 MZ세대가 직접 체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택산업 전문화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 고택 매니저 육성 및 위탁운영 사업을 전개하고 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엄재진 기자 jinee@maeil.com

상주시 선사시대 암각 유적 무더기로 발견

바위 홈 자국 주술적 행위 흔적 3m 높이 암벽 정상부에 125개 ‘사벌국 실체 밝혀질까’ 기대감

경북 상주의 고대 국가인 사벌국 중심지로 추정되는 사벌국면에서 선사시대 바위구멍 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바위구멍 유적은 암각문화 바위그림의 일종으로, 바위에 홈을 파고 특별한 소원을 빈 주술적 행위의 흔적이다. ‘알구멍’이나 ‘알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3일 상주역사공간연구소가 공개한 바위구멍 유적은 사벌국면 금촌리 속칭 ‘사벌왕골’에서 발견됐다. 이 계곡 가장 높은 부분에 높이 3m 정도의 암벽이 솟아 있는데 바위구멍은 정상부에 조성돼 있다.

폭 0.4~1.3m, 길이 11.5m의 평평한 바위 표면에 지름 3~14cm, 깊이 7cm 이내의 구멍 125개가 확인됐다. 이 주변에서는 앞서 5개의 암반과 바위에서 49개의 구멍이 발견된 바 있다.

김상호 상주역사공간연구소 대표는 “바위구멍 유적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져 온 암각문화로서 지역 곳곳에 남아 있으나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역사공간연구소(대표 김상호)가 공개한 선사시대 바위구멍 유적. 상주 사벌국면 금촌리 속칭 ‘사벌왕골’에서 발견됐다. 상주역사공간연구소 제공

“이부곡 토성을 비롯해 옛 사벌국 중심지에서 발견된 바위구멍 유적은 이번에 발견된 유적을 포함해 모두 16곳 247개로 사벌국의 실체 규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에는 사벌국면과 인접한 낙동강변에서 선사시대 윗판 암각화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윗판 암각화는 제천의식에 이용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즐기는 민속놀이인 윷놀이 말판과 거의 일치해 흥미롭다. 또 2017년에는 가로 5.4m 세로 2.1m 표면에 두 명의 사람과 두 개의 얼굴 가면 등 모두 20점의 형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는 암각화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도현 기자 dory@maeil.com

“방역요원 특별승진 혜택을” 이철우 지사 중대본서 건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K-방역의 핵심은 의료진의 헌신, 국민 참여와 함께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희생”이라며 “방역요원에게 심신 재충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요원에게 물리치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 대응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도내 각 보건소에선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방역 근무에 지친 전문 인력의 사직과 휴직이 잇따르고 있다.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헬터번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 이들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지사는 22일에는 경산시보건소를 찾아 선별진료소 현장을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그는 “오미크론 확산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고의 방역은 협력이다. 경북도와 질병관리청, 각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방역 당국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판촉물은 역시! 그린기프트

1588-8480
www.greengift.kr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 소평물

그린기프트

080*999*9898 전국택배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선물

제44회 세계양봉대회 대상수상

안상규벌꿀

안상규 양봉 신지식인 1호 * 기네스북 기록보유자 * 후지TV선정 아시아 최고기인 • SINCE 1982

안상규벌꿀은 시중유통을 하지 않으며 직영점(고산점, 동명점, 수성못점, 성서점, 구미점, 여의도점)에서만 판매합니다.